

2026 하이러닝 선도교원 200명 선정!

하이러닝 표준 교안 연수를 통한 하이러닝 선도교원 전문성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에 선정된 하이러닝 선도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2026년 하이러닝 선도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하이러닝을 활용한 표준 교안 작성과 수업 설계 사례 공유·실습을 통해 하이러닝 선도교원의 수업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과정은 모두 6차시로 진행되며 ▲2026년 하이러닝 정책안내 ▲하이러닝 초·중등 표준 교안 연수 ▲하이러닝 수업 설계·활용 심화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를 이수한 선도교원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하이러닝 연수’ 강사로 활동하며, 새 학년도 하이러닝 운영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업 실천 연구회 운영, 온라인 상담 연수, 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간담회와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이정현 과장은 “하이러닝 선도교원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학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 중심의 하이러닝 확산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2031년 목표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를 목표로 한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시청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2027년~2031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7월 말까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는다.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청사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업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여성친화도시 인식과 시민 정책 욕구 조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성남시 특화사업과 대표 과제 발굴 등이다.

성남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집단 면접 인터뷰 15명, 전문가 3명에 대한 면접 조사도 진행한다.

도시 전반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시민 체감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 올해 9월 성평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27~2031년)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무원도 국민… 부당한 마녀사냥 중단해야”

이권재 오산시장은 웅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화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결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선 통제 ▲오후 5시 30분 교동통계 재난문자 발송 및 상행선 전면 통제 ▲오후 6시 40분 오산시 부시장과 도로과장이 보수 현장 점검을 위해 현장 도착 ▲오후 7시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안전 점검 준비 등의 절차를 수행하던 중 오후 7시 4분 보강토 웅벽이 붕괴되면서 하루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대응 타임라인에 비춰볼 때, 오산시가 민원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오산시 도로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담당 공무

원들과 부시장까지 직접 출동에 있었으며, 단순 보수가 아닌 도로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까지 현장에 호출한 상태였다.

이권재 시장은 같은 시각 폭우로 인한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오산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도로 상부 차량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당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불과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 결함이 없다는 B등급을 받은 웅벽이 즉각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재 오산시 도로과 담당 팀장과 주무관 등 3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까지 웅벽 인근에는 부시장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4명이 직접 현장에 머무는 정도로 담당자들 역시 상황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애곡, 억척을 삼가달라고 당부하기도 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올해 2월 4일에는 오산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기획예산과, 안전정책과 등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권재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공직자 34명이 60여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요구된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시장 집무실과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맞춤형 도시재생 지역관리 서비스를 소개해

우리 동네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해야 하나? 절차는 어떻게 되지?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시군을 위해 기존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우수사례 10개를 선정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도내 원도심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 더드림 서비스’ 10개 시범 모델을 선정해 도내 시군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민선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원도심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 더드림 서비스’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맞춤형 지역관리 서비스의 이름이다. 주민·도시재생지원센터·마을조합·기업 등이 연계해 돌봄·교육·복지·공공시설 관리 등 수익사업을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핵심이다.

도는 기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지 18곳을 대상으로 진단 컨설팅을 한 후 우수 사례 5곳을 선정해 심층 종합컨설팅을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10개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10개 모델은 ▲저층주거지 관리 분야 ①집수리 ②빈집관리 ③저층주거지타운메니지

경기도, '경기 더드림 서비스' 10개 모델 선정. 시군에 배포



먼트 ▲‘노후상권 활력 회복’ 분야 ④전통시장 식자재 전처리 ⑤상권 지역 타운메니지먼트 ⑥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점점지역 활성화’ 분야 ⑦거점연계 주민·배달 서비스 ▲‘유휴공간 활용’ 분야는 ⑧영유아 돌봄 결합 공간 운영 ⑨무인 생활 편의시설 ▲‘재생에너지 활용’ 분야 ⑩햇빛발전소 사업 모델 등이다.

도는 모델별로 사업 내용, 예산, 주체별 역할, 수익구조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소개해 어떤 도시재생 모델을 추진할지 고민하는 시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모델 개발과 함께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 등 ‘경기 더드림 서비스’에 참여 가능 주체를 목록화했다. 이를 통해 시군

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여건에 맞는 참여 주체를 효과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개발한 서비스 모델과 참여주체 목록을 시군에 배포해,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기존 및 신규 사업에도 ‘경기 더드림 서비스’를 도입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10개 서비스 모델은 시군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사업종류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3호선 연장사업 하남시 전 구간 입찰 성립으로 본격 스타트!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이하 3호선 연장) 2·3·4공구의 입찰이 모두 성립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다고 밝혔다.

3호선 연장사업은 2026년 1월 9일 터키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접수에서 3공구만 입찰이 성립되어 2·4공구의 재공고를 진행한 결과 지난 2월 10일 2·4공구에 각각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립되면서 사업 지면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이로서 2공구(감일~교산지구내)는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대보건설 컨소시엄이 3공구(교산지구내)는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이 4공구(교산지구내~하남시정역)는 극동건설 컨소시엄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합 구도를 이뤘다.

정장선 평택시장, 설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상인들과 현장 소통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를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는 10일 서정리시장·송탄시장·국제중앙시장을 시작으로 11일 통북시장, 13일 안중시장에서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올해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정리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통북시장 고추전골목 아케이드 건립 ▲전통시장내 모든 공공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중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송탄시장 공동마케팅 구이축제 ▲국제중앙시장 아케이드 간판 교체 및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해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하남시, 터키 입찰안내서에 주민 의견 반영 기반 마련 성과



이번 입찰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터키사업자 입찰안내서에 주민의견 반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하남시는 경기도와 수차례 면담과 건의를 통해 정거장 계획시 주민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한 결과, 입찰안내서에 “정거장 외부 출입구는 수요조

사 지자체 협의, 주민 의견 등 이해관계 편의를 검토하여 기본계획 출입구 수 이상으로 계획”한다는 의견을 반영시켰다.

이는 향후 입찰참여자자 기본설계 단계에서 하남시의 출입구 설치 등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하남시의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서정리·송탄·통북·안중시장 등 순회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담겨있는 공간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통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며 “고물가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많은 시민께서 신선하고

저렴한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송민수 기자

파주시, ‘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 나선다

파주시가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 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일, 올해 3대 시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전담하는 ‘100만 파주 도약 티에프(TIF)팀’을 주축으로 제1차 ‘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최병강 파주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자문회의 구성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첫 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주시 소유 부지를 활용한 대학원 건립 지원 방안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지자체-대학-기업 간 상생 협력체계 조성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의 특성을 살려 교육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파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파주형 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구체화하고, 행·재정적 지원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AIX 전략 포럼’ 개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AIX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용인시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AIX, AI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아 용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능형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지역 대학, 반도체 관련 학회, 소·부·장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은 두 차례의 전문가 발제와 라운드 테이블 토론으로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강상기 한양대학교 AI 솔루션 센터장과 강경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융합SW연구센터장이 나선다.

2부 토론은 반도체 분야 석학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와 좌장을 맡고, 이한주 비스텔리스 대표, 김진우 HEX AI, LABS 대표, 그리고 용인특례시 류광열 제1부시장이 참여해 ‘지산학(地産學) 협력’을 통한 소부장 AI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내 소·부·장 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내 스마트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해빙기 대비해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 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한다.

3월 3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45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안전자문단(20개소)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합동 점검(7개소), 자체 점검(18개소)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토공 작업 구간 배수로 설치, 표면수 유입 방지 조치 ▲흙막이 가시설 설치 적정성, 지하굴착 구간 계속 관리 상태 ▲품질·시공·안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이행 여부 ▲현장대리인·상주 감리자 등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 등이다.

아울러 건축안전자문단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으로 현장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과 자문을 제공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품질관리와 안전 확보는 건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건축관계자의 지속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며 “해빙기뿐 아니라 우기·동절기 등 위험 시기별로 지속해서 점검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